



한쪽의 동양화 한려수도

강창욱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전체가 한쪽의 동양화 처럼 아름답고 수려하다. 점점이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섬들, 망망하면서도 맑고 푸른 태평양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구비구비 여러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 끝없는 해안선, 하얀 파도 시원하게 가르며 분주히 오가는 가지가지 배들. 어찌 그뿐이라. 산과 바다에 얽혀 내려온 수많은 전설과 역사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사랑하게 하고 웃기를 여미게 하고 영원하게 한다.

우리는 잠깐 다녀가는 곳이지만 영겁의 흐름 속에 연면히 이어져 갈 조국의 한 부분이기에 더욱 정감을 더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다.

전국에는 4곳의 해상국립공원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고 이 중에서 관광객이나 자연애호가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바로 소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남해하고도 금산(錦山)이다.

남해도를 육지와 연결시켜 주는 남해대교, 고운 모래 호수처럼 잔잔한 깨끗한 물, 그리고 낙장송으로 이루어진 짙은 숲으로 그 유명한 남해안 유일의 해수욕장.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금산을 더욱 금산되게 하고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을 한단계 더 높여주고 있다.

금산의 뛰어난 경관 38경에 서려있는 전설도 아기자기하려니와 우리나라 3대 기도처로서 유명한 산이 또한 금산이다. 멀리 백두산의 정기를 남에서 이어받은 산, 금산! 진정 해양의 선경이요 남해의 영악이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암자를 짓고 명상에

잠겼던 곳, 500년전 이태조(李太祖)께서 공부하고 기도하여 조선조(朝鮮朝)를 개국하여 임금이 된 곳. 먼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 보낸 동남 선녀 500명이 지나갔다고 하는 서시과차, 의상대사(義湘大師)의 기도처인 삼사기단, 조선조 중엽 주세붕 선생이 탐승하여 이곳에 온 곳을 기념하여 남겼다는 문장암 등 그 기기묘묘한 바위와 능선, 계곡의 나무 숲이 잘 조화를 이루어 빛어내는 모습은 찾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장엄할사! 충렬사(忠烈祠) 남해 노랑 강가에 달 밝은 밤. 한산섬 수루에 높이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바다를 향해 호령하여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애족의 얼이 서린 이곳 한려수도.

서쪽으로는 글자 그대로 수려하기 이를데 없는 여수(麗水)해안의 풍경.

남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바다 그리고 바다.

동으로는 숨박꼭질하듯 어우러진 섬.섬.섬.

높은 산정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세속에서 훌훌 털어 벗어나게 하는 영기(靈氣)를 품고 있는가 보다.

정녕 굵구나, 아름답구나, 정겨웁게 펼쳐지는 한려수도 삼백리!

▲ 필자소개 : 경남 남해출생. 고려대학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상대학교 강사, 상주중학교교장 등을 역임, 퇴임후에는 줄곧 향토사랑, 자연사랑운동에 헌신중. 현재 본협회 한려해상 서부지부장.